

성신 강림 대축일

기도서 P. 309 C해
1독 (사도행전 2장1-11절)
2독 (고린토전 12 장3b-7절
12-13절)
복음 (요 한 20장 19-23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정 승 원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감 론 □



우리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서 석 기 신 부

예수께서는 세상에 강생하실 시초부터 성령의 인도로 이뤄졌습니다. “그 태증의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마태오 1,20) 또한 세례받으실 때도 성령이 그분 위에 강림하셨고(마태오 3,16) 공생활 하시기 전에도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받을 일을 견내고 전도를 하시며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가 마태오와 마르코는 비슷한 순서로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역사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여러가지 일을 당신들에게 들려준 바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것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실 것이고 내가 당신들에게 한말을 모두 되새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 14,25-26) 승천하시기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불길같은 혀들이 각 사람에게 내리자 무서워 떨고만 있던 그들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전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첫 설교에서 삼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주셨고, 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사도 2,38)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고 첫 설교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이 기쁜소식을 믿으십시오.”(마르코 1,15)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 성령은 지체인 우리안에서 역사하심으로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교회의 관심사에 대해서 끝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무려 252군데나 언급했는데 특히 전례계획에서 성령의 증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에넨스 추기경은 “성령은 나의 희망”이라는 저서에서 굳게 닫혀있는 교회의 창문 몇개를 열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성신강림의 폭풍과도 같은 세찬바람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안을 온통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공의회가 애써 열어놓은 창문마저 10년남짓 흐른 요즈음에와서 만일이라도 제도, 권위, 금전등의 우직한 벽들로 막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정녕 하느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마베 성령의 바람에 장애되는 벽을 헐고 폭풍같이 불어오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세상끝까지 채워야겠습니다.

진리의 성신이며 임하소서, 어두운 내 마음을 밝히 비추사 당신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삼례 천주교회 주임신부)



권능의 체험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이다. 성신강림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기는 하지만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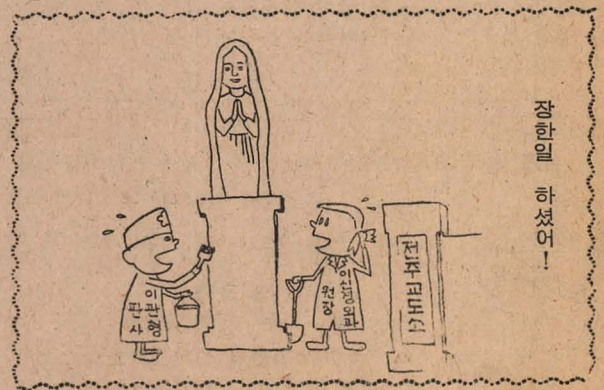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당가는 길이 나 착한 생활의 이상을 가르치려 오셨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보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부활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힘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곧 성령이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성령의 힘을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힘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기껏해야 그들은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천당에 가게 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다. 아뭏든 그들의 생활로써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따마나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 부활과 성신강림 사이에 지내던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승리를 믿기는 하지만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경향잡지 77년 5월호에서)

숲 정 이 산책



□사색의 오솔길□



말 한다는 것

정 승 원 신부

스무 번쯤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
니다.

아직 어느 분에게서도 “정신부님, 쓰잘 데 없는 말씀
좀 치우실 수 없습니까?”라는 항의를 받지 않았습니
다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해야 할 말을 하는가? 하고 싶은 말
을 하고 있는가?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말을 하고 있
는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가?

이 세상에는 해야만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
않아서는 안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말이 분명 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 「철의 장막」이라는 주말의 명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
문에 무서운 현실을 겪지 않으면 안되는 불행을 보았습
니다.

해야 할 말을 알고 싶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습니
다. 불가피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말을 외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어느 신부님과 함께 병석에 계시는 그분 아버
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좋은 웃음을 웃으시
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야 할 자
녀들에게 家訓詩를 지어 네 자녀에게 모두 한 벌씩 베껴
두었습니다. 그 날에는 막내인 이 신부 아들에게 당신이
짓고 쓴 가훈시를 읽으시며 설명해주셨습니다.

“여기 저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뜯어 먹
는 염소는 배가 고프다”는 뜻의 구절도 있었습니다만 그
분의 가훈시는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말, 꼭 하고 싶은
말,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석에서 아픈 몸으로도 시를 짓고 글을
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할 말을 칩묵으로 죽여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 편히 쉬십시오.

※진복팔단 ⑥※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정결한 자와 그 복(디모테오 전 1,1-17)

김 영 구 신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
게 될 것이다.”(마태오 5장 8절)

누구나 깨끗한 것을 좋아 합니다. 사실 청결은 건강에
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의 척도가 되
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 인간의 외부 생활을 깨
끗이 하는데 여러가지 공헌을 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만 깨끗해서
안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은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눈부시게 깨끗하지만 그 마
음은 부조리 등으로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청결케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하
지만 겉으로 들어나는 청결이 중요하기 보다는 “마음에
서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과 같은 여러가지 악한 생각”(마태오 15,19)이 더 문제
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회절한 무덤」이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먼
저, 불결하다는 것은 본래의 상태에 필요없는 것이 끼어
든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더러운 마음은, 하느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에 다른 불결한 마음이 섞인 상태를 뜻
합니다. 음욕, 탐심, 시기, 교만, 미워함, 헐기, 거짓됨
등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달아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은 일조일석에 얻어지는 것이 아
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알고,
하느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
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가
운데 마음까지 깨끗해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
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
다.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금구(연))

☆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3-1449

☆새로나왔다! 삼화온수 보일러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정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함(각 가정에도 저렴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사순절 헌금 내주신 분 ④

◆ 팔 마 ◆

김안나(410), 황현순(320), 홍화일(710), 허정자(775), 김영희(960), 한순혜(415), 허금옥(300), 김종수(810), 이학선(665), 최원순(500), 윤말선(500), 장기수(500), 정복임(500), 전규남(500), 임홍규(500), 최원순(500), 송현옥(500), 박오목(500), 원복순(500), 김홍식(720), 홍안드레아(420), 박순희(400), 김비비안나(510), 마리아(420), 김명수(280), 재양선(140), 포 용(660), 강금선(150), 김대현(230), 심하지(625), 유춘일(350), 공기주(350), 이현숙(740), 홍후실라(400), 한인순(175), 조정순(730), 양베로니카(803), 김도마(800), 이아가다(410), 박양순(650), 안장영(240), 안춘희(190), 송근수(400), 기타 익명 12명 (11,806),

◆ 부 안 ◆

부안 김인수 (2,000), 남성코너 (5,000), 흥테레사 (1,200), 김철환, 장순철, 김단기, 김용태, 김동희, 김채술(각 1,000), 박상기(440), 장수길(700), 임옥희(600), 박덕화(300), 이점례(100), 최보경(900), 이완근(890), 엄병오(500), 김효락(400), 전테레사(540), 장철수(700), 홍마리아(220),
상서 장세장(500), **행안** 김마리아(900), 임춘길(570), **평교** 최영숙(310),
등용 김준태 회장의 54인(15,907), **공작** 김태평(525), **사산** 김판길(1,745), 익명들(1,470), **철호** 고상금(1,060), 박문재(1,000), 강남철(1,000)김중태(750), 박래춘(550), 최수용(505), 강중학(500), 고재규(450), 황성여(400), 김영선(390), 김양조(380), 힌기신(300), 박금여(212), 이현규(70),
텍립 김재열 (595), 정인수 (510), 김병기 (560), 한윤석 (550), 이홍근(480), 정남균 (420), 정남수 (450), 한동오 (410), 정순경 (320), 이상호(310), 이동철 (300), 이동수 (250), 이재근 (220), 김상근(300),
즐포 장문기 (730), 김홍열 (555), 구기서 (510), 구백우 (500), 신문근(435), 최명중 (220), **백산** 이사도(1,000), 정금모 (432), 정만옥 (250),

◆ 창 인 동 ◆


창인 1구 오보나 (1,400), 김아나다시아 (1,950), 김은홍 (2,770), 양희연 (2,450), 송별영(3,625), 이수암(1,055), 조젤마 (700), 차계철 (790), 김금초 (600)
창인 2구 유스텔라 (3,400), 이용우 (1,800), 김세시리아 (1,500), 김젤마 (365),
중앙동 오승열(8,630), 양판례(1,000), 채우철(2,838), 전몽식(3,480), 박마리아(980) 천테레사(980), 문도민가(460),
갈산동 오종록(1,615), 성효정(1,110), 신용옥(3,175), 전애순 (455), 안나 (785), 서암순 (345), 서바울라(560), 서말타 (200), 김인정 (105), 노재순 (540)
주원동 태운진(2,465), 김용만(1,651), 강엘리사벳(1,040), 김봉오(610), 김복자(625), 정소피아(710),

요심이 (200) 김병오

김추기경이 카터대통령과 같이 박사학위를 받았구나!



그냥 있을수 없지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 쪽이겠다



가톨릭을 우습게 보지마라



이신경외과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대주집)
 전화 ㉠-9793
 원장 이 증 두(헬리크)

금·은·보석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각종 사진 출장

카메라 대여, 학교 앨범취급

중 앙 사 진 관

한 월 규(야고보)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7901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 1665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 진 약 국

—조계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 많이 찾아 주세요 *

군산 梨花 치과 의원

박 안드레아(찬운)

☎ 8711 (천일약국2층)

천일약국 2층

조화당

전화국

국도국장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성모의 밤 행사(30일 <월> 오후 7시 반, 전동성당에서...L.M. 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옹 주관)
 - 전동성당 성모상 앞에서 행사를 갖고 치명자산까지 성모상을 모시고 촛불 행렬함
 - 꼬미시옹 직속 단원의 의무적인 참가와 지역 단원의 참여를 권장함
- 대학생 연합회 공동체 목상회(6월 4-6일, 가톨릭센터, 회비 1,500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주교구 교리교사 임시 대의원 회의(오늘 오전 11시~12시, 가톨릭 센터 교구 연합회 사무실) 각 지구와 본당의 대표 1명씩 빠짐없이 참석바람
- 금주의 방송안내
 - 문화방송: 매일 밤 11시 25분부터 「별이 빛나는 밤에」 김진석 신부 방송
 - 서해방송: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사색의 오솔길」 이태주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 영세와 견진 받으신분들께 축하드립니다
- 성모의 밤: 31일<화> 밤 8시
※화분 및 초 봉헌 바랍니다
- 성심 부녀회 정기총회: 6월 1일<수>
- 병자 봉성제: 6월 2일<목> 오후 2시
- 주일 미사후 성당 마당에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대학생회: 매주 공식 미사후 회합,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생가연습
□ 지난주 봉헌금: 113,2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 영세 받으신분들께 축하드립니다(10시미사)
- 성모의 밤 행사: 30일<월> 밤 7시반
서학동→치명자 산<초, 목주 지참하세요>
-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 습득물: 공동체 목상회때 인장과 치갑 분실하신 분은 찾아가세요
□ 지난주 봉헌금: 28,295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성모의 밤 행사: 30일<월> 밤7시반, 전동성당 L.M 단원의 많은 참여 바람(공지사향참조)
- 어린이 영세식: 6월 4일<토> 오후 3시
※부모님과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반까지 나오세요
□ 축 청년회 발족!: 오늘 저녁 미사후
※본당내의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바람
□ 지난주 봉헌금: 51,966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사제관
-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매월 첫주 공식미사후, 회의실
- 애령회 월례회: 오늘 9시, 임원님들 꼭 나오세요
- 영세받으신 분들(40명)께 축하 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54,29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 신축 위원모임: 공식 미사후
- 치명자의 모후 회합시간 변경: <수>오후 8시
- 할머니 어머니를 성목회에 적극 참여하세요
- 신구활동 성서교리: 매주<토·일> 저녁미사후 교우분, 예비자들 꼭 나오세요
- 성모의 밤 행사: 오늘 밤 7시반
※십신 단체별로 기도, 꽃, 초 봉헌 준비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27,55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 ※이순성 부제님의 사제서품식과 이상철 신학생님의 시종품에 앞서 조당 유무 보고 바랍니다
- 성모의 밤 행사: 30일 밤 7시반, 공지사향 참조
 - 장우회 순교자 순례: 월요일, 여산
 - 교도소 성모상 제막식: 31일<화> 오후 2시
 -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반
 - 동반장회: 오늘 저녁 미사후
 - 견진교리: 31일<화>부터 매일 밤
 - 목주기도 10만번중 37,655번
□새성당 신축헌금: 9,088,000원, 금품 28돈
전동-주임신부(65만8천, 반지 7돈), 이종두, 강해룡(각100만), 유종현(50만), 익명(40만), 익명(30만, 열쇠3돈), 김용옥(30만), 방준철(10만, 열쇠3돈), 김대원, 양윤모, 이영희(각10만), 보좌신부(반지 3돈)김순녀(3만, 고상2돈)/교동-유석중, 김병오(부 30만), 황기연, 익명(각10만),이귀남(10만, 부룩지2돈), 이상태(5만), /남노송-김후만(20만), 김베너카(반지3돈), 풍남-익명(50만), 유희진(30만), 이영문(15만), 최○○(10만), 이선경(5만, 반지1돈), 은영은(반지1돈) 서암산-황희성(30만), 이현재(20만), 권재규(1만)/경원-김봉호(10만)/이서-채수현(50만)/기타-익명2(각30만), 강홍기(3만)/동완산-범창규(10만)
□ 지난주 봉헌금: 109,72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승택
사도 회장 조성호

- 신자들의 기도: 조성호, 박홍기, 김화자, 이명숙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꼭 나오세요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12시 미사후 합동 성월기도 바칩니다
- 신입하신 교우님 월별 납부 되었나 확인합니다
- 야동 교리(매주 토 오후 3시)에 부모님들 관심 주세
요 어린이 미사-오후 4시
- 주일미사?... 신자의 의무?... 본당에서?...복음서, 기도서, 성가책 지참?
□ 지난주 봉헌금: 37,375원, 정성껏 봉헌합니다